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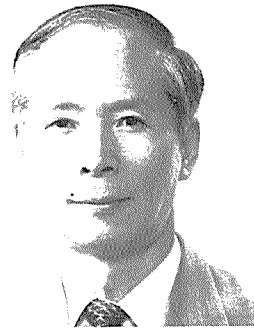
3원색의 호화 찬란한

## 매커우

영명 : Scarlet Macaw

학명 : *Ara macao*

일명 : Kongo Inko



김 성 수

야생동물 전문 수의사/수의학 박사

**앵**무목(目) 앵무과(科)에 속하며 아메리카 대륙의 열대지방, 멕시코, 볼리비아, 파나마 등지에 분포하고 삼림지대, 안데스 산맥, 해발 3,500m의 고지대, 밀림지대에 서식하면서 식물의 열매, 씨앗, 과일 등을 먹으면서 살아간다.

매커우는 수컷과 암컷 모두 화려한 색깔의 옷을 똑같이 입었으며, 이마에서 등(背)과 배(腹)는 붉은색이고, 허리와 아래쪽 꼬리 덮기는 파란색이며, 날개 덮기는 황색이고 얼굴은 흰색으로 나출(裸出)되어 있으며, 부리는 얇은

황갈색이고 꼬리는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길게 늘어져 있어서 마치 그림을 펼쳐 보는 듯이 아름답기 그지 없으며 매커우와 같이 수컷(♂)과 암컷(♀)이 같은 옷으로 입고 있는 새는 극히 드물다.

몸길이 85~90cm 중에서 꼬리의 길이는 몸 전체의 1/3을 차지한다.

매커우는 한쌍 또는 적은 무리를 지어 활동하고, 날아갈 때는 빨강, 노랑, 파랑 등 3원색이 바람에 나풀거리는 호화 찬란한 모습이어서 눈이 떴어지지 않는다.



매커우 등우리는 큰 나뭇가지 위의 동굴을 잘 활용하여 들락거리면서, 사랑을 나누고 나

“

매커우에게 짧은 단어를 주입시키는 교육을 반복하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전화 받으세요’ 등의 말을 앵무새나 구관조 못지않게 잘 구사한다.

”

면 2~3개의 알을 산란하며 암컷의 책임 하에 포란하여 28일이 지나면 예쁘고 귀여운 새끼를 부화 시킨다. 수컷과 암컷은 새끼가 성장할 때 까지 돌봐준다.

또한 재미있는 일은 매커우에게 짧은 단어를 주입시키는 교육을 반복하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전화 받으세요’ 등의 말을 앵무새나 구관조 못지않게 잘 구사하는 저력이 있다.

따라서 매커우가 있는 곳에서는 욕설(辱說)을 함부로 하거나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흉내 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주의력이 필요하다. **양계**

\* 필자 연락처 : 017-285-7581